

2020 국별 진출전략

방글라데시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3
1. 개요	3
가. 시장 전망	3
나. 주요 경제지표	3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4
가. 공격적 인프라 개발 목표와 원조 확대	4
나. 구매력 확대로 소비재 시장 및 제조업 신규투자 활성화	5
다. 중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 정책 드라이브	6
라.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LPG 사용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	7
II. 비즈니스 환경 분석	8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8
가. 정치 환경	8
나. 경제 환경	9
다. 산업 환경	11
라. 정책·규제 환경	12
2. 시장 분석	13
가. 시장 특성	13
나. 교역	14
다. 투자진출	15
라. 프로젝트	15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17
가. 교역	17
나. 투자 및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	19
다. 주요 경제협력 의제	20
III. 진출전략	28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28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9
3. 한-방글라데시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3
4. 진출 시 유의사항	36
첨 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37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38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39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41
부 록	
對방글라데시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42



I. 시장 평가 및 주요 이슈

1 개요

가. 시장 전망

2020년 방글라데시 경제 전망 : 상승

- 2010년 이후 8년 동안 지속적으로 6% 이상 성장
 - * GDP 성장률(%) : 6.5('11) → 6.5('12) → 6.0('13) → 6.1('14) → 6.6('15) → 7.1('16) → 6.3('17) → 7.8('18)
 - 막대한 인구(약 1.7억 명)를 배경으로 소득 수준이 빠르게 상승, 중·고품질 소비재 및 서비스에 대한 수요 확대
- 대외원조와 공공부문 주도의 인프라 사업 확대
 - 발전, 도로, 상하수도 등 대형 프로젝트 수요가 많으나 국가 재정 취약으로 유·무상 원조에 의존, World Bank/ADB/JICA 등 다수의 원조기관 간 경쟁 심화
 - * 연간 대외원조 30억 달러 이상, AIB 출범으로 원조기관 간 경쟁 심화 추세
- 방글라데시 정부 투자정책 확대에 따른 신규 투자진출 대상지로 부상
 - 방글라데시 투자청(BIDA)과 경제특구청(BEZA)에서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음
 - 미-중 무역전쟁으로 중국 소재 기업들의 방글라데시 진출이 대거 이루어지는 중

나. 주요 경제지표

주요 지표	단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인구	백만 명	157.6	159.4	161.2	163.0	164.7	166.4	166.6	164.0
명목 GDP	십억 달러	150.0	172.9	195.1	221.4	247.2	266.6	268.2	305.0
1인당 명목GDP	달러	951	1,084	1,210	1,358	1,466	1,602	1,610	1,860
실질성장률	%	6.0	6.1	6.6	7.1	6.3	7.8	8.2	8.3
실업률	%	4.3	4.2	4.1	4.1	4.1	4.7	4.4	4.4
소비자물가상승률	%	6.78	7.35	6.40	5.92	5.44	5.90	5.90	6.00
재정수지(GDP대비)	%	-3.4	-3.1	-3.2	-3.8	-4.7	-3.3	-4.2	-3.8
총수출	백만 달러	28,638	29,925	31,736	34,136	35,911	37,563	36,666	30,909
(對韓 수출)	"	332	345	335	293	285	347	-	-
총수입	"	35,001	37,406	37,856	40,366	42,384	44,249	50,164	48,484
(對韓 수입)	"	1,427	1,236	1,209	1,158	1,276	1,238	-	-
무역수지	백만 달러	-6,362	-7,482	-6,120	-6,230	-6,473	-6,686	-13,498	-17,575
경상수지	"	2,058	756	2,580	1,274	849	478	278	182.5
환율(연평균)	현지국/US\$	77.75	77.95	78.50	78.80	82.65	83.24	86.88	86.50
해외직접투자	억 달러	7	12	17	15	12	13	17	19
외국인직접투자	억 달러	15	15	18	20	24	22	25	25

주: 2019년은 추정치, 2020년은 전망치 기입

자료 : IMF, 한국무역협회, Bangladesh Bank

2

2020년 주요 이슈 및 전망

- 공격적 인프라 개발 목표와 원조 확대
- 구매력 확대로 소비재 시장 및 제조업 신규 투자 활성화
- 중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 정책 드라이브
-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LPG 사용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

가. 공격적 인프라 개발 목표와 원조 확대

 **인프라 개발 중심 정부지출 목표 대폭 증가**

- 인프라 부족을 경제 성장의 최대 장애물로 인식
 - 인프라 경쟁력 지수 : 전 세계 138개국 중 114위(인도 68위)
- 2019년 6월 발표한 2019/20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연차개발지출(ADP, Annual Development Programme) 규모는 225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로 증가
 - 연차개발지출(ADP)은 인프라, 에너지 등 개선을 위해 편성된 정부의 개발 지출을 뜻하며, 정책 방향을 가장 잘 드러내는 지표
 - 전체 세출의 약 35.4%를 인프라 개발에 집중하고 있음
- 가장 큰 폭의 증가를 보인 부문은 전력, 철도, 도로, 수자원개발 분야

 **대외차관 및 PPP로 인프라 투자에 대폭 지원**

- 정부재정 취약으로 대외차관, PPP*(공공-민간 파트너십) 방식의 프로젝트 개발
 - 정부는 만성적인 재원 부족으로 해외원조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 WB(월드뱅크), ADB(아시아 개발은행), JICA(일본 원조자금), 중국차관 등을 통해 발전, 도로, 항만, 상하수도 등 대형 프로젝트에 집중 투자
 -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15년 PPP청(Public Private Partnership Authority Bangladesh)을 설립하여 프로젝트 발굴 및 투자 유치에 힘쓰고 있음
- 중국과 일본의 인프라 분야 대규모 원조
 - 2016년 10월 중국 시진핑 총리의 방글라데시 방문 시 향후 5년간 23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구축 관련 지원(soft loan)을 약속
 - 일본은 인도양 견제를 위해 항만을 비롯한 물류·운송 인프라 정비에 다양한 투자 계획(총 6개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ODA 자금으로 약 15억 9,000만 달러 지원 약속)

나. 구매력 확대로 소비재 시장 및 제조업 신규투자 활성화

 **방글라데시 경제의 지속 성장으로 IMF는 2020년 방글라데시 GDP를 3,050억 달러, 1인당 GDP를 1,860 달러로 전망(1인당 GDP 10년간 177% 증가)**

- 특히, 1인당 GDP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방글라데시 국내 소비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으로 미용·식품·프랜차이즈 등 소비재 및 연관 산업 분야에 대한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는 추세
- 그동안 유통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던 물류와 교통난과 같은 문제를 활용해 아래와 같은 스타트업이 성장해 나가는 중

▶ **식료품 구입 앱 Chaldal.com**

- 극심한 교통체증과 주차난으로 인해 생필품 쇼핑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에 착안, Chaldal 사는 식료품 구입 앱을 개발하여 운영함
- Chaldal사의 앱을 통해 농산물, 채소류, 가공식품 등을 일반 매장 대비 20% 정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구입가격이 한화 3천 원만 넘으면 무료 배달을 하고 있음

▶ **음식 배달 앱 Foodpanda**

- 소득이 증가하면서 외식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교통체증 등의 문제로 이용 확대에 장애가 있는 점에 착안, Foodpanda사는 음식 배달 앱을 성황리에 운영 중임
- Foodpanda에 가입된 식당을 앱에서 검색하여 주문하면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

▶ **방글라데시 대표 전자상거래 플랫폼 Daraz.com**

- 온라인에서 물품 구입 시 Daraz 직원이 직접 배달해주는 방식의 온라인 쇼핑몰
- 백화점과 쇼핑몰이 없는 방글라데시 특성과 배송에 제약이 있는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사업모델로 백만 명이 넘는 회원 수를 바탕으로 폭발적으로 성장 중

 **경제특구(EZ: Economic Zone) 개발을 통한 제조업 육성**

- 2010년 경제특구법 발효, 전담관청(BEZA, Bangladesh Economic Zones Authority) 설립
 - 전국에 국영 및 민간 경제특구 100개 개발 중(현재 초기 단계)
 - 기존 의류산업의 총 본산인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 성공에 이은 제조업 활성화 정책의 핵심(의류 산업이 국가 수출의 80% 차지)
 - 우리나라 70년대 공업화, 수출 드라이브, 국산화 정책에 비교됨
- 중국, 일본 등 자국 경제특구 개발 추진 중
 - 주변 인프라(전력, 가스, 도로, 상하수도 등) 개발 부족으로 사업 진척 속도는 지연

기존의 EPZ와 EZ 비교

▶ EPZ(수출가공공단)

- 수출전용, 세금 등 인센티브
- 정부 8개+Korean EPZ*
- * KEPZ : 영원무역, 300만평



▶ EZ(경제특구)

- 수출 + 내수판매도 가능
- 세금 등 인센티브는 동일
- 전국 100개 개발(정부+민간)

소비재 시장 확대로 자체 제조업 신규투자 활성화

- 1.7억 명의 거대한 내수시장 기지개 → 가전·식품·일반 소비재·신규 제조업 활발
- 지방, 농촌지역까지 안정적 전력 공급 → 소득 증대 → 냉장고, 에어컨 등 가전제품 수요 폭발

다. 중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 정책 드라이브

'Vision 2021' 정책 추진

- 방글라데시는 독립 50주년인 2021년에 중진국 진입을 목표
 - 중진국은 최빈국(LDC : Least Developed Country) 탈출을 의미
- 2041년까지 선진국 진입 목표
 - GDP 목표 : 3,350억 달러('21) → 25,800억 달러('41)
 - 1인당 국민소득 목표 : 2,000달러('21) → 12,600달러('41)
 - * 2030년까지 경제규모 26위 예측(현재 전 세계 42위, 베트남 46위)
- 경제 성장률 두 자릿 수(10% 이상) 달성에 집중
 - 지난 8년 동안 지속적으로 6% 이상 고도성장, 18년 최고(7.8%)
 - * 6.5('11) → 6.5('12) → 6.0('13) → 6.1('14) → 6.6('15) → 7.1('16) → 6.3('17) → 7.8('18)

산업 다각화 및 고도화, 수출 품목 다변화

- 섬유·봉제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인 650만 명으로 국가 수출의 80%, 전체 제조업에서 50% 이상 차지
 - 저임금, GSP 관세 특혜에 의존한 특정 산업 편중현상 탈피 필요
 - 봉제 산업 자동화, 최빈국 탈출에 따른 관세혜택 박탈 등 위협
- 기존 단순 봉제 산업에서 초기 단계의 기술제품(전기·전자 제품, 자전거 등), 제약, 조선, 자동차 부품, 식품가공, 고급·기능성 섬유 등으로 산업 다각화 및 수출 품목 다변화 모색
 - 자국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고율의 관세부과 정책 유지

- 완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회피를 위해 전기·전자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 현지 조립 생산 추세로 전환(부품 수입 및 조립생산 → 부품 자체 생산 단계로 발전)

라.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LPG 사용 확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

 **방글라데시 전체 에너지원의 60%를 차지하는 천연가스(LNG)는 20년 후 고갈예정**으로 대체 에너지원 발굴 시급

- 방글라데시 내의 천연가스 고갈이 임박함에 따라 기존에 LNG를 사용하던 발전소·공장·일반 가정 전반이 심각한 가스 부족 현상을 겪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입 LPG 사용과 관련 산업 활성화가 불가피하며, 주요 분야는 LPG 보틀링 터미널 신규 건설, LPG 충전소 설치 및 천연가스 사용 차량의 LPG 차량 전환, LPG 탱크 및 용기 수입 및 판매 등이 주목



Ⅱ. 비즈니스 환경 분석

1 정치·경제·산업·정책 환경

2018년 총선에서 집권당인 Awami League당이 연임을 확정하며 2009년부터 이어진 하시나 총리의 집권을 2023년까지 이어가게 되었고, 10년 동안의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국민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

가. 정치 환경

양당 경쟁 관계

- 방글라데시는 1971년 독립 후에도 지도층 암살, 수십 차례의 쿠데타에 이은 독재 등으로 정치 불안정이 지속되다가 1991년 3월 20일 방글라데시 최초 민선정부가 출범
 - 자유, 복수정당제로 40여개에 달하는 정당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으로는 AL(Awami League)와 BNP(Bangladesh Nationalist Party) 두 정당이 번갈아 국가를 이끌고 있는 양당 체제

기간	집권 정당
1972-1975	Awami League
1975-1981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1982-1990	Jatiya Party
1991-1996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1996-2001	Awami League
2001-2006	Bangladesh Nationalist Party
2007-2008	과도 정부
2009-현재(2018년 연임)	Awami League

- AL당은 벵갈민족주의·민주주의·세속주의·사회주의를 이념으로 가지고 있으며, BNP당은 벵갈 민족주의·민주주의·이슬람주의·자유시장주의를 지향
- 셰이크 하시나(Sheikh Hasina) 총리가 이끄는 AL당과 칼레다 자아(Khaleida Zia)가 이끄는 BNP당은 방글라데시의 정치지 형을 흔드는 막강한 영향력을 가짐

🌐 현 정치 상황

- 2009년부터 AL당(Awami League)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집권하며 2013년, 2018년 총선에서도 연임에 성공하여 2023년 말까지 집권 예정

나. 경제 환경

🌐 경제 성장

-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 국내 정정불안 등에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6%대 이상의 GDP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음
- ADB는 2018/19년도 방글라데시 GDP 성장률을 8.0%로 발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

IMF의 방글라데시 경제 성장률 및 전망

지표	단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GDP성장률	%	6.6	7.1	6.3	7.8	8.2
GDP	십억달러	195.1	221.4	247.2	287.6	314.7
1인당GDP	달러	1,210	1,358	1,466	1,744	1,888
인플레이션	%	6.4	5.9	5.4	5.6	5.4

주 : *는 잠정 및 추정치

자료 : IMF(2019.9)

🌐 금리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시중금리 예금은 5%로, 대출은 9%대로 유지
- 신규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였고, 이에 따라 시중금리도 하락세

2018/19년 방글라데시 시중 은행 평균 예금-대출 금리

시기	'18.7	'18.8	'18.9	'18.10	'18.11	'18.12	'19.1	'19.2	'19.3	'19.4	'19.5	'19.6
예금	5.40	5.36	5.27	5.25	5.30	5.26	5.34	5.34	5.35	5.42	5.46	5.43
대출	9.71	9.63	9.54	9.47	9.50	9.49	9.49	9.49	9.50	9.46	9.51	9.58

자료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2019.9)

🌐 환율

- 2013년 하반기 이후에는 77~78타카 전후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다 무역적자 확대로 타카화 가치가 하락세(평가절하)를 보여 최근 83~84타카를 기록 중
- 수입이 회복되는 가운데 수출, 투자유치, 근로자 송금 등 달러 공급면에서 특별한 변동 요인이 없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됨

미 달러 대비 방글라데시 타카화 환율 추이

연도별 환율		월별 환율			
회계연도	연평균환율	월 별	월말 환율	월 별	월말 환율
12/13	79.93	18.7월	83.75	19.1월	83.95
13/14	77.72	18.8월	83.75	19.2월	84.10
14/15	77.67	18.9월	83.75	19.3월	84.15
15/16	78.28	18.10월	83.83	19.4월	84.35
16/17	78.70	18.11월	83.85	19.5월	84.50
17/18	82.12	18.12월	83.90	19.6월	84.50

자료 : 방글라데시 재무부(연평균환율) 및 중앙은행(월말환율, 201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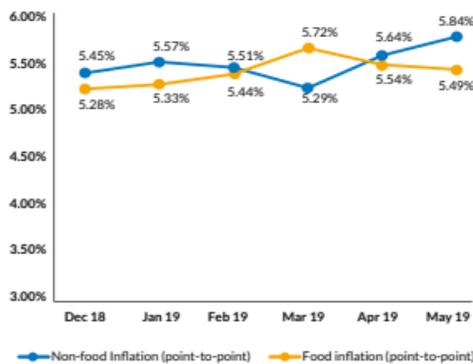
물가

- 2012년 이후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며, 2016년 초부터 5%대를 진입, 2019년에는 5%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음
- 단, 최근의 물가 안정세는 식품가격 하락에 의존하고 있으며, 비(非)식품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어 불안요인으로 작용

월별 인플레이션 추이

(단위 : %)

INFLATION



주 : 인플레이션은 2018년 12월~ 2019년 5월 자료

자료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원조 자금 유입 호조

- 연간 원조액(지출액 기준)이 해마다 증가하며, 17/18 회계연도에는 연간 63.69억 달러로 증가
- 단, 약정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현지 정정 불안, 부정부패 등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 지연으로 40%대에 그치고 있음

대(對)방글라데시 대외원조 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회계 연도	약정액(commitment)			지출액(Disimbursement)			지출률
	무상원조	차관	합계	무상원조	차관	합계	
05/06	628	1,159	1,787	501	1,067	1,568	87.7
06/07	728	1,528	2,256	590	1,040	1,631	72.3
07/08	962	1,881	2,842	658	1,403	2,062	72.5
08/09	423	2,021	2,444	658	1,190	1,847	75.6
09/10	555	2,429	2,984	639	1,589	2,228	74.7
10/11	830	5,138	5,969	745	1,032	1,777	29.8
11/12	1,441	3,323	4,765	588	1,538	2,126	44.6
12/13	555	5,300	5,855	726	2,085	2,811	48.0
13/14	498	5,346	5,844	681	2,404	3,084	52.8
14/15	494	4,765	5,258	571	2,472	3,043	57.9
15/16	544	6,503	7,048	498	3,033	3,563	45.2
16/17	405	17,557	17,962	459	3,218	3,677	20.5
17/18	705	14,194	14,899	382	5,987	6,369	42.7

주 : '약정'은 공여국정부/공공기관이 수원국정부/국제기구 앞으로 특정목적의 재원을 일정한 조건으로 지원키로 서면 약속하여 구속력이 발생한 것이며, '지출'은 수원국정부/국제기구가 재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원이 이전된 상태

자료 : 방글라데시 대외경제협력청(ERD, 2019.6)

다. 산업 환경

농업 위주 산업구조에서 공업 중심으로 전환 중

- 방글라데시는 점차 전통적인 농업 위주 산업구조에서 탈피하여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중이며, 이 중 의류 산업이 상당부분 차지
- 각 산업별 GDP 비중을 살펴보면, 1970년 55%에 이르렀던 농림수산업은 2017/18 회계연도 기준 14.23%까지 축소되었으며, 제조업 33.66%, 서비스업 52.11% 차지
- 다만, 노동인구의 40%가 농업에 종사 중이며, 30%가 제조업에 종사
- 제조업은 기초 산업 부재로 대부분의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며, 제조업 중 의류산업이 전체 수출의 84%를 점유하고 있고, 기타 의약품, 냉동 어류, 황마, 차, 가죽 등이 주요 수출 품목에 해당

의류제조업은 노동여건 이슈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최근 정부는 기존 단순 봉제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고도화를 추진 중,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의류인 데님 분야에 7,000만 불 투입 결정

* 한국은 방글라데시 의류부문 제1위 해외투자국가이지만 의류제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제한으로 추가 진출은 미흡한 상황

제조업 규모 확대 및 고도화 추세 뚜렷

- 제조업 기반이 매우 척박하였으나 최근 가전, 수송기계, 일반기계, 의약품 등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신규 투자 수요도 활발

라. 정책·규제 환경

제7차(2016-2020) 중기 경제개발 계획을 통해 연평균 성장률 7.3%라는 전망을 제시

- 방글라데시는 제7차 5개년 계획(2016~20년)에 따라 ① 6%의 경제 성장을 넘어 연 평균 7.4% 달성, ② 빈곤층을 고려한 포용적이며, 도시화에 적합하고,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경제 성장, ③ 빈곤층(24.8%→18.6%) 및 극빈층(12.9%→8.9%) 비율의 실질적 감소, ④ 모든 가용 노동력 고용 등 4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 추진 중
- 또한, 주요 거시경제 목표로 실질 경제 성장률(6.5%→8%), 인플레이(6.5%→5.5%), GDP 대비 투자율(28.9%→34.3%), GDP 대비 FDI (0.8%→3.0%), 수출(317억 불→541억 불), 무역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42.97→50%), 경제에서 부문별 비중 조정(제조업 28%→33%, 서비스업 56.4%→54.1%, 농업 15.6%→12.9%) 등을 설정

2 시장 분석

대(對)방글라데시 수출은 2012년 이후 매년 감소하였으나, 2017년 수출액이 10.2% 증가하여 새로운 수출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기존 봉제 산업 위주의 수출에서 벗어나 품목이 다변화되어 향후 수출증가가 더욱 기대됨

가. 시장 특성 및 전략적 가치

📌 시장 특성

- 본격적인 경제 성장으로 구매력 증가, 저가 → 중·고가 수요 확대
 - 지난 7년간 연간 6%대 이상의 높은 경제 성장, 내수시장 확대
 - * 성장률(%) : 6.5(11) → 6.5(12) → 6.0(13) → 6.1(14) → 6.6(15) → 7.1(16) → 6.3(17) → 7.8(18)
 - 기존 저가 중국, 인도산에서 미용, 일반 소비재 중심으로 중고가 시장 형성
- 수입대체 수요를 반영한 현지 대기업들의 제조업 투자 활성화
 - 기존 수입품(식품, 가전, 석유화학 등)에 대해 국내 자체제조 확산
 - * 삼성, LG 가전제품 현지 조립 시작, 현지 브랜드 냉장고 중동·아프리카, 유럽 수출 개시
 - 정부에서도 EZ(경제자유구역) 100개 지정, 제조업 육성
- 인프라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 건설 붐 지속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 성장 저해한다는 인식에 따라 정부의 개선 의지 확고
 - 중국, 일본 및 MDB(다자개발은행)의 인프라 투자 급증
 - * 중국 시진핑 방문 250억불 합의, 일본 아베 방문 50억 불 합의
 - 대표적인 해외 건설 시장인 GCC 국가의 최근 수주 금액 지속 감소, 인도,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서남아 건설 수주 금액 폭증
 - GCC 국가는 지난 4년간 수주 금액 53% 감소, 서남아 지역은 4배 성장
 - * 최근 건설 장비업체, 사업장 이전(S사, 지반보강 장비, 쿠웨이트 → 방글라데시)

최근 중동 및 서남아 건설수주 금액 비교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중동(GCC*)	16,526	12,422	9,616	7,708
서남아(합계)	1,110	580	1,143	4,752
인도	888	70	763	2,915
방글라데시	126	155	144	1,654
파키스탄	43	261	90	101
스리랑카	53	94	146	82

*GCC : 사우디, 쿠웨이트, UAE, 바레인, 오만, 카타르
 자료 : 해외건설협회

전략적 가치

- 성장 잠재력이 높고 지정학적으로 요충지에 있어 투자가치가 높음
 - 중국은 '21세기 신(新) 실크로드' 계획 내 방글라데시를 '해상(海上) 실크로드' 거점으로 지정, 양국 정상 간 230억 달러 투자 협약 체결
 - 일본은 '벙골만 산업 벨트(BIG-B)' 계획 하에 5년간 59억 달러 원조 약속
- 높은 경제 성장 및 내수 시장 확대로 현지 대기업의 신(新) 제조업 분야 진출로 우리기업이 진출할 분야가 많음
- 공공 부문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반면, 자체 제조업은 취약, 정부·군·NGO 등의 국제 입찰을 통한 조달 수요가 많음
 - * 전 세계 연간 ODA 자금의 1.6%(26억 달러, 2016년 World Bank 자료)가 방글라데시로 유입
- 정치적 안정으로 지속적인 경제 성장 토대 마련
 - 그동안 경제 성장 저해 요인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이 정치적 불안정과 공무원의 부정부패
 - * 4번의 쿠데타, 2명의 국가 원수 시해, 공무원 부패 지수 전 세계 175개국 중 149위
 - 현 정부는 2009년 이후, 10년째 장기 집권, 2018년 말 총선 승리로 향후 5년간 기존 경제정책 기조 유지 전망
 - 부정선거 등의 시비가 있으나 대부분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경제 성장에 역점을 두는 분위기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매력적인 현지 제조 환경
 - 아시아 지역에서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 중국, 베트남을 대체하는 생산기지로 각광
 - * 최저 임금 월 US\$100 수준(중국의 1/5 수준)
 - 1억 6천만 명 중 18~35세 젊은 노동인구가 64%로 노동력 풍부
 - 오랜 외세 침입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에 대한 거부감 적은 편

나. 교역

무역 동향

- 2017/18년의 경우 수출은 6.4% 증가하고 수입도 25.2% 증가하여 무역규모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무역수지 적자폭은 확대

방글라데시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 달러)

구분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수출	금액(\$백만)	27,027	30,187	31,209	33,441	34,019	36,205
	증가율(%)	11.2	11.7	3.4	7.1	1.7	6.4
수입	금액(\$백만)	34,084	40,732	40,579	39,901	43,491	54,463
	증가율(%)	- 4.0	19.4	-0.4	-1.7	9.0	25.2
무역수지		-6,954	-10,506	-9,370	-6,460	-9,472	-18,258

자료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2019.9)

- 봉제의류가 최대 수출품목이면서 대부분이 유럽 및 북미로 수출됨에 따라 수출 상위 국가에도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이 자리하고 있음
- 최대 수입국은 중국으로 기계류, 면사 및 면섬유, 전기전자 제품 등을 주로 수입하고 중국, 인도 순으로 자리하고 있음
- 정부의 수출품목 다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류(우븐 및 니트) 수출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며, 주요 수입품목은 섬유제품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기계류 및 전자기기와 그 부품, 광물 및 광물제품이 뒤를 이음

다. 투자진출

투자 현황

-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2018년 약 25억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

방글라데시 직접투자 유치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금액	증감률
직접투자	1,833	23.8	2,003	9.2	2,454	22.5	2,540	3.5

자료 : Bangladesh Bank(2019.9)

- 영국, 미국, 호주, 네덜란드 등 서구와 한국,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가 주요 투자국들로, 선진국들은 에너지, 금융, 통신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있음
- 특히, 토지, 전력, 가스 등 기초 사회 간접자본의 열악함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의류제조업에 대한 신규 외국인 투자 제한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라. 프로젝트

프로젝트 수주 현황

- 방글라데시는 국제 원조기관의 지원을 받아 다수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발주해왔음
- 우리기업은 2000년대 초반까지 자무나(Jamuna) 대교, 다카-실렛 고속도로 등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으나, 2016년까지 발전소, 정수장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일반 토목 프로젝트(도로, 교량) 수주 실적은 전무
 - 2017년 방글라데시 정부 발주 송전선로 수주(GS건설, 2,000억 원 규모)와 JICA 자금의 발전소 수주(포스코건설, 1조 원 규모)로 우리 기업 진출이 다시 활기를 띠고 있음

- 엔지니어링(설계, 시공감리 등) 부문은 2013년 최초 수주가 개시된 이후 빠른 속도로 성공사례를 늘려가고 있음
 - 유럽 등 선진국 엔지니어링사들이 수익성 등을 고려 방글라데시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에 높은 비중을 두지 않는 가운데 중국, 인도는 기술력 및 실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잠정적 블루오션’ 환경이 만들어짐

우리기업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 현황

수주 연도	프로젝트 내용	금액
2013	민간 컨테이너 터미널 및 산업단지 F/S 수주 - 발주처/지원기업: A.K.Khan / DECO + 삼일PWC 컨소시엄	36만 달러
	다카시 교통국 버스전용차선(BRT) 시스템 설계 수주 지원 - 발주처/지원기업: 다카시교통청(DTCA) / 선진엔지니어링 컨소시엄	190만 달러
2014	SASEC 도로 시공 감리 - 발주처/지원기업: 도로청(RHD) / 건화엔지니어링 컨소시엄	1300만 달러
	파드마 브리지 주교 및 제방공사 시공 감리 - 발주처/지원기업: 교량청(BBA) / 도로공사 컨소시엄	4,900만 달러
2016	아크라-락삼 철도 신설 및 복선화 시공감리 - 발주처 / 지원기업: 철도청 / 철도시설공단+도화 컨소시엄	2,500만 달러
2017	파투아칼라-고팔간지 송전선로 공사 - 발주처 / 지원기업: 전력청 / GS건설	1억 7,900만 달러
	마타바리 석탄화력발전 프로젝트 공사 - 발주처 / 지원기업: JICA / 포스코건설	9억 달러
	마타바리 석탄화력발전소 항만(JETTY) 공사 - 발주처 / 지원기업: JICA / 현대건설	6억 달러
	DESCO 33kv PJT - 전력케이블 지중화 사업 - 발주처 / 지원기업 : 전력청 / LS 전선	4,600만 달러

자료 : 다카무역관 보유자료

3 한국과의 경제 교류 및 주요 경험 의제

가. 교역

- 한국의 대(對)방글라데시 수출은 2011년 1,628백만 달러로 정점에 달한 후 지속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7년 10.2%로 폭발적 증가
 - 방글라데시의 제조업 신규투자 활성화 및 경제 성장에 따른 수출품목 다변화 등의 영향으로 대(對)방글라데시 수출이 활기를 띠고 있음
 - * 단, 대(對)방글라데시 수출의 경우 관세 절감을 목적으로 큰 폭의 언더밸류잉(under valuing)이 일반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반대로 방글라데시 바이어의 요구에 따른 오버밸류잉(over valuing)도 빈번하여 공식 통계와 실제 수출규모 간에 격차가 있음
 - 대(對)방글라데시 수입은 2013년까지 빠른 성장세를 보이다 2018년에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이러한 수입 증가세는 의류 및 기타섬유제품(캠핑용품 등) 수입 증가로 분석

한국의 대(對)방글라데시 수출입 동향

(단위: 백만 달러, %)

	수출		수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2011	1,628	4.7	244	75.3	1,383
2012	1,459	-10.4	295	20.8	1,164
2013	1,427	-2.2	332	12.7	1,095
2014	1,236	-13.4	345	3.9	891
2015	1,209	-2.2	335	-3.0	872
2016	1,158	-4.2	293	-4.2	865
2017	1,276	10.2	285	-2.7	990
2018	1,238	-3.0	347	21.3	891

자료 : 한국무역협회(2019. 6)

- 대(對)방글라데시 주요 수출품목 동향
 - 2018년 철강판, 농약 및 의약품, 섬유기계 및 화학기계 등 기존 주력 수출품목이 부진하거나 더딘 회복세를 보인 가운데 합성수지, 종이제품 등이 호조를 보임
 - 최대 수출 품목이던 철강판의 경우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약화 등으로 수출 호조 지속 여부는 불투명함
 - 의약품의 경우 한국에 생산공장을 둔 글로벌 제약사의 국제기구 납품 물량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대(對)방글라데시 10대 수출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MTI 3단위 기준)

품목명	2017년		201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합성수지	123	10.7	132	7.2
철강판	144	-4.2	130	-9.8
종이제품	79	2.4	92	16.2
농약및의약품	73	33.5	69	-5.8
섬유및화학기계	48	-3.9	45	-5.7
아연제품	62	69.5	42	-31.6
염료및안료	35	-6.6	42	19.4
기타석유화학제품	31	10.0	42	36.0
기타직물	40	4.7	38	-5.6
전력용기기	50	183.1	35	-28.8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대(對)방글라데시 주요 수입품목 동향

- 대(對)방글라데시 수입은 의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 2018년에는 전체 수입 중 78.6%를 넘어섰으며, 두 자리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음

대(對)방글라데시 10대 수입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MTI 3단위 기준)

품목명	2017년		2018년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의류	217	8.2	273	26.1
운동 레저용품	12	42.3	12	2.3
신변잡화	12	-17.0	11	-5.2
가죽	9	-68.3	10	1.3
동제품	7	170.7	9	19.4
신변잡화	7	20.9	7	-6.9
기타직물	3	14.5	4	16.1
기타섬유제품	3	-4.8	4	11.8
기타농산물	3	-20.4	3	-0.9
기타금속광물	1	44.0	2	49.2

자료 :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 수출 성공 사례(2017)

회사명	탐포인트
품목	주사기 생산설비 공급
시장환경	· 방글라데시는 최근 경제 성장으로 인해 병원시설 및 의료설비 수요가 폭발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현지 국립 병원/사설병원의 조달수요가 많고, 이외에 우리나라 EDCF 자금을 통해 진행되는 병원 설비 및 관련 의료 기기 공급 수요도 존재, 향후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으로 예상
KOTRA 지원사항	· 무역관으로 접수된 인콰이어리를 지사화 사업 가입업체인 탐포인트에 전달하여 본격적인 지원 업무 시작 · 국내 상담회인 KSM(Korea Service Market)에 바이어인 GME사(社) 방한을 유치하였고, 양사 간 본격적인 업무협약이 시작됨 - 방한 시 탐포인트 1:1미팅 이외에도 GME사(社) 밀착지원 · 2017년 전체 금액의 20%인 0.46백만 불 T/T송금, 2018년 L/C를 통해 잔여금 1.84백만 불 송금
주요성과	· 단순한 설비 공급 이외에 또 다른 지사화 가입업체인 우진프라임(플라스틱 사출기 제조)도 관련 생산설비 1백만 불 규모 추가 성과 기대 중(가격협상 중)
향후계획	· 주사기 설비공급에 이어 당뇨치료 주사기 및 버터플라이 니들과 같은 추가 설비공급도 기대 · 탐포인트는 향후 방글라데시 의료시장에 관련 의로기기 및 설비를 지속적으로 공급 예정

○ 수출 성공 사례(2018)

회사명	KCP중공업
품목	콘크리트 펌프 크레인 차량
시장환경	· 방글라데시는 다양한 원조자금으로 프로젝트가 진행 중. 만성적인 전력부족으로 발전소 프로젝트도 다수 진행 중으로 프로젝트와 관련된 수요가 상시 존재 ·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되며 국내기업 수출 사례가 많아지는 추세
KOTRA 지원사항	· 방글라데시에 러시아 원조자금으로 진행 중인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에 현지 발주처 미팅 후 구매 수요를 KCP중공업과 연결, 지속적인 F/U를 통해 2018년도 수출 완료
주요성과	· 콘크리트 펌프 크레인 2백만 불 1차 수출 · 1차 납품 후 추가 유사제품 4백만 불 수출, 2018년말 납품 완료
향후계획	· 현지 협력업체 및 발주처 담당자를 통해 지속적인 인콰이어리 발굴

나. 투자 및 인프라 프로젝트 진출

- 대(對)방글라데시 투자 : 3.22억 불(2018년까지 누계, 신고금액 기준)
 - 1978년 (주)대우가 방글라데시 정부와 봉제 부문의 합작투자를 한 것이 시초
 - 대표적인 한국 투자 기업 : 영원무역(의류/신발, 1980년 진출, 종업원 5.5만 명), HKD(텐트, 1991년 진출, 종업원 6천여 명) 등
- 현재 방글라데시 정부는 전력·에너지·교통 분야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 중
 - 한국기업은 파드마 대교 시공감리,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SASEC 도로 시공감리, 송전선로 건설 등에 참여 중
- 최근에는 현지의 신규 제조업 투자 활성화와 서비스업 활황에 따라 식품가공, 프랜차이즈, 전기 기기 제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현지 합작투자 활발

- 2016년에는 코오롱이 정수장 및 관로 사업을 수주, 2017년 GS건설 파투아칼리 송전선로 수주, 마타바리 발전소 포스코건설·현대건설 수주 등 전문분야에 대한 한국기업 수주를 이어가고 있음

대(對)방글라데시 직접투자 추이

연도	신고건수(건)	신규법인/지사 수(개)	투자금액(천불)
80-05	297	132	180,066
2006	15	12	1,088
2007	45	21	11,050
2008	34	11	7,373
2009	32	10	5,671
2010	58	14	44,932
2011	55	10	9,152
2012	44	14	13,208
2013	39	7	9,149
2014	40	3	6,073
2015	28	15	5,386
2016	31	10	6,863
2017	47	9	21,314
2018	67	16	14,532
합계(누계)	867	288	322,208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2019.9)

다. 주요 협력 의제

 **경제협력 현안 및 중점추진 의제**

① 인프라 프로젝트 개발 협력 및 한국기업 참여 확대

- 현황
 - 열악한 인프라가 경제 성장의 장애라고 인식한 방글라데시 정부의 개선 의지 확고
 - 인프라 개발 부문의 세계 경쟁력 지수에서 총 138개국 중 114위에 위치함(인도 68위, 베트남 79위)
 - 8%대 이상의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을 3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함
 - 2018/2019 회계연도 기준 예산안에 따르면 연차개발지수(ADP) 규모는 211억 불(전체 세출의 37%)로 전년 대비 16.9% 대폭 증가
 - 대표적인 해외 건설 시장인 GCC 국가의 최근 수주 금액 지속 감소, 방글라데시, 인도를 중심으로 서남아 건설 수주 금액 폭증
 - * GCC 국가는 지난 4년간 수주금액 53% 감소, 서남아 지역은 4배 성장
 - * 최근 건설 장비업체, 사업장 이전(서진기공, 쿠웨이트→ 방글라데시)

최근 우리기업의 방글라데시 건설 수주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수주금액	수주건
2014년	126	10
2015년	155	11
2016년	144	11
2017년	1,653	15
2018년	172	17

자료 : 해외건설협회

- (한국) 주요 국내 엔지니어링사(설계, 감리)가 현지 진출하여 외국기업 중 가장 활발하게 수주 및 사업 수행 중, 현대건설, 삼성물산 등 최근 신규 지사 설립, 대기업 건설사 진출 가속화
 - * 현대건설 : 2018년, 인도에서 방글라데시로 지사 이동
 - * 삼성물산 : 2018년, 건설 부문 지사 신규 개설

국내 엔지니어링사의 방글라데시 진출 성공 이유

- 진출기업 : 도화, 건화, 희림, 유신, 한국해외기술공사(KCI) 등
 - * 도화 : 철도 감리(30백만 불), 고속도로 감리(26백만 불), 건화 : Pyra항만 개발 컨설팅(7백만 불)
- 성공 여건 : 미국, 유럽, 일본 기업보다 가격 면에서 경쟁력 있고, 기술력 측면에서 중국, 인도, 태국 등 견제 가능, 중국, 인도, 일본 차관 제공 프로젝트의 경우 감리 분야는 해당국 제외
- 현지 정부 및 기업은 한국의 성공적인 인프라 개발 경험에 대한 벤치마킹 의지 표명

○ 경제 협력 방안

㉠ 인프라 개발 초기 단계의 컨설팅 제공

- 특히 개발 계획 혹은 사업 타당성 조사 단계는 무상지원도 필요
- 무상 컨설팅을 통한 향후 본 프로젝트 설계 및 시공 참여 가능성 제고

컨설팅 제공의 중요성

- 우리의 최대 건설 프로젝트 시장이었던 중동은 국내 컨설팅사가 크게 활약할 수 없었던 상황(대부분 미국, 유럽 컨설팅사가 주도함)
- 초기 컨설팅을 통해 우리기업에 유리한 사업방식 + 기술규격 즉, 한국형 스펙 지정) → 수주 활동에 유리하고 수주 후에도 한국산 설비 공급 확대 가능
- * 컨설턴트 역할 : 타당성 조사, 설계, 시공감리, 입찰업무 진행 등 방글라데시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함

- 전력, 배전, 상하수도, 철도, 도로, 항만, 공항,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 등 주요 발주처 관계자 국내 초청 연수 및 시찰 제공(정식 연수 프로그램 혹은 국내 개최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 관련 행사에 적극 초청, 예: Global Project Plaza, MDB Project Plaza 등)

㉡ 인프라 개발 지원 공적 원조 확대를 통한 현지 진출 입지 강화

- (일본) 2014년 아베 총리 방문, 50억 불 차관 제공 합의
 - * 일본이 현재까지 제공한 ODA 차관 : 120억 불(한국 실적은 12억 불)

- (중국) 2016년 시진핑 주석 방문, 230억 불 차관 제공 합의
 - *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인 뱅골만 경제권 장악, 항만, 철도, 에너지 투자
- ㉔ PPP(공공-민간 파트너십) 프로젝트 공동 발굴 및 투자 확대
 - EIU는 아시아 지역에서 방글라데시를 중국, 태국과 함께 신흥 PPP 시장으로 분류함
 - 현 총리가 2010년 한국 방문 시 PPP를 통해 개발된 한국 인프라 시설에 감명 받고 한국 사례를 공개적으로 자주 언급함
 - * 'PPP 정책 및 전략' 수립 착수가 2010년인 점을 감안하면 시사점이 있음
 - 2015년 발족한 PPP청과의 협력 확대
 - * 2019년 4월, KIND(한국 해외인프라도시개발공사) - 방글라데시 PPP청 MOU체결

정부 승인 주요 PPP 프로젝트 현황

- 총 45건, 사업비 140억 원(이 중 13개 사업은 규모가 1억 불 미만)
- 승인된 45건 중 41개 사업이 사업시행 준비 중
- IPP 등 전력분야의 PPP 사업은 PPP 제도 하에 분류하지 않음
- 전체 사업 중 주로 교통 분야가 많으며 30% 차지
- 공단 개발 분야도 중요한데 수출 가공단지, IT 산업단지가 포함됨
- 주택단지 분야는 신도시 개발, 아파트 단지 구축, 쇼핑몰 구축이 있음
- 에너지 분야는 수입, 저장 및 판매 시설 등

② 전력·가스 등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 현황

- 발전연료인 천연가스와 석탄자원 개발에 실패하여 차선책으로 연료(중유, 디젤)를 사용하는 렌탈 발전소(rental power plant)에 의존하여 연료 수입 급증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2018년 석유 관련 제품 수입은 49.3% 급증)
- 현재 87%가 천연가스를 사용해 발전 중인데, 자체 발굴 천연가스 고갈로 인한 가스 부족에 따라 발전능력 이하로 운영
- 최근 전기 공급 사정은 개선,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 지원 중
 - * Doing Business Index중 전력공급, 2018년 4단계 개선(여전히 전 세계 185위)
- 향후 중점 사업으로 전력 공급 확대에 집중 투자할 계획
 - * 현재 발전량 21,169MW → 24,000MW(2021년) → 40,000MW(2030년)
- 현재 1,200MW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2기(총 2,400MW)를 각각 2023년, 2024년 가동 목표로 건설 중
- 대대적인 발전소 건설 및 발전량 증가에 따라, 송·배전망 구축 사업 수요도 매우 높음
 - * 방글라데시는 발전과 송·배전을 분리하여 2개의 주무관청을 두고 있음(BPDB : Bangladesh Power Development Board, PGCB : Power Grid Company of Bangladesh)

○ 문제점 및 고려사항

- 최근 발전소 건립, LNG/ LPG 수입 터미널, 해저 가스전 개발 등 국책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정부의 재원 부족으로 난항을 겪고 있음
- 대부분 BOT, 시공자 financing 등 금융을 수반한 형태로 프로젝트가 추진되어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혀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취소되는 경우도 많음

○ 경제 협력 방안

㉠ 발전 및 배전 분야

- 석탄 이외의 천연가스 발전 분야에 대한 BOT 방식의 투자 진출
- 2016년 한국전력은 방글라데시 전력청과 1,200MW 석탄 화력 발전소 투자 MOU를 체결 하였으나 OECD의 석탄 화력발전소 투자자제 권고 등으로 현재 사업 추진은 담보 상태
- 천연가스 방식의 발전소 투자 및 발전소 운영 참여 가능
 - * 한전 KPC, 2013년 매그하나 복합화력발전소(350MW) O&M(운전 및 정비) 계약 및 관리 중
- 송·배전 분야, 계량기 등 전력량 측정, 스마트그리드 신기술 등 상호 기술협력 및 우리기업 프로젝트 수주 확대 방안 협의
 - * GS건설(400kV), LS전선(230kV), 효성 등이 송전, 변전소 프로젝트 수행 중

㉡ 가스 분야 협력

- 향후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 자국 내 천연가스 개발, 가스 발전, 산업·민간 소비용 에너지원 확보에 있으므로 이러한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양국 간 협력 프로젝트 확대 및 기존 추진 중인 프로젝트 애로사항 적극 해결 요청

국내 기업이 참여 중인 주요 관련 프로젝트

(포스코인터내셔널)

- 2017년 국영기업인 Petrobangla사와 심해 가스전 탐사 계약체결, 현재 순조로운 탐사 진행 중

(한국가스공사-포스코인터내셔널)

- 모헤시칼리 LNG 육상 터미널 BOT 투자 사업(규모 10억 불) 추진 중

(SK가스)

- 모헤시칼리 LPG 터미널 직접 투자 사업
- 목적 : 수요가 급증하는 방글라데시에 LPG 냉동 터미널 인프라 선점을 통해 LPG 시장 구조 변화 주도 및 관련 시장 장악
- 투자 규모 : 총 3.4억 불, 현지 기업과 합작 투자 예정
- 추진 현황 : In-Land Port 내 부지확보 추진, SK가스, 일본 기업, 현지 기업 지분 구조 최종 합의 단계 * 일본 JICA가 개발 중인 부지를 활용하게 되어 일본기업과 합작 추진

③ 공업화 정책 국가에 대한 제조업 파트너링 사업 추진

○ 현황

- 자국 산업보호, 제조업 육성, 신규산업단지 개발, 국산화 정책,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정책 방향이 공업화 쪽으로 급선회

- GDP에서 제조업 비중 2012년 28% → 2018년 34% 수준으로 확대

Table 2 Structure of GDP of Bangladesh(As Percentage of GDP at constant prices)

Sector	2011-12	2012-13	2013-14	2014-15	2015-16	2016-17	2017-18
Agriculture	17.38	16.77	16.50	16.00	15.35	14.74	14.23
Industry	28.08	29.00	29.55	30.42	31.54	32.42	33.66
Service	54.54	54.23	53.95	53.58	53.12	52.85	52.11

자료 : Bangladesh Economic Review, 2018.

- 자국산업 보호 및 세수 증대를 위해 총 세수 중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9% 수준(칠레 1%, 태국 4.3%, 캄보디아 15% 수준)
- 현지 대기업은 수입품보다 가격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현지 조립 생산 및 자체 생산을 위해 공장 설립에 집중
- 수년간의 평균 6~7% 경제 성장으로 내수시장 규모 확대
 - * 특히 최근 2~3년 내 전기·전자 제품 수요가 급증하여 삼성, LG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파트너 사를 통하여 조립 및 생산 체제로 전환

외국기업 - 현지 기업 합작 공장 설립 사례

- 일본 Honda사는 민간 경제특구(EZ)에 오토바이 조립공장을 완공하고 현재 생산 중
- 인도 Tata 자동차가 49%의 지분으로 현지 Nitol그룹과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
- 인도 Mahindra & Mahindra 그룹이 현지 Rangs 그룹과 합작, 자동차 CKD 조립공장 설립(연간 2,200대 생산)
- Ifad Auto, Runner Automobiles, Uttara Motors 등에서도 이러한 CKD 형태의 승용차, 상용차, 오토바이 등에 대한 조립공장 계획을 세우고 공사 중

- 가전제품의 경우, 현지 기업인 Walton사는 에어컨, 냉장고, TV, 세탁기 등 거의 모든 가전 제품을 현지에서 자체 생산하여 중동·아프리카, 유럽지역에 수출 중
- 비록 관련 부품은 대부분 중국, 대만, 한국 등지에서 조달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부품 개발에도 투자를 확대
- 방글라데시는 우리나라의 70년대와 같은 고도 경제 성장, 공업화, 국산화, 수출품목 다변화 단계에 있으므로 상호 협력 가능 분야 및 가능성이 높음

양국 제조업 환경

한 국	방글라데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제조업 성장 둔화 및 한계 상황 - 한국 제조업은 벤치마킹 대상 제조 설비 및 엔지니어링 역량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초기 단계 및 투자 활성화 - 전국 100개 경제특구 개발, 제조업 육성책 가동

○ 경제 협력 방안

- 한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산업단지 개발 경험 전수
 - * 최근 BEPZA(수출가공공단 관리청), 총리실 등 관련 기관에서 한국의 산업단지 벤치마킹을 위한 방한단 지원 요청함
- 방글라데시 전기·전자 제품 제조기업과 한국의 관련 부품·소재 기업 파트너링 사업 추진
- 국내 유희 제조업 설비 수출, 제조업 엔지니어링 기술 협력
- 툰키 베이스의 공장 설립, 기술 제휴, 운영 노하우 전수
 - (제조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출, 국내 인력 고용 창출에도 기여)

④ ICT 및 관련 Start-up 분야 협력

○ 현황

- ‘Digital Bangladesh’의 기치 아래 정부에서 ICT 산업을 집중 육성

정부의 ICT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 소프트웨어 및 ITeS 기업에 대해 소득세 면제
- ICT 관련 기업의 사무실 임차료에 대한 부가세 100% 면제
- 최대 3년 동안 외국 ICT 기술자에 대한 개인 소득세 50% 면제
- ICT 관련 제품의 수출에 대해서는 10% 현금 인센티브 제공
- ICT 관련 분야에 투자된 초기 자본금과 수익에 대해 본국 송금 편의 제공
- 각종 기술 훈련 프로그램을 통한 기술 습득 기회 제공
- ICT 인큐베이터 프로그램 및 Hi-Tech Park 등 관련 인프라 제공
- 관련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 인하 (매우 낮은 수준의 명목적인 관세 부과)

- 총리에 대한 ICT 정책 보좌관 역할을 총리의 아들이 담당
- 특히 미래 젊은 세대를 위한 고급 일자리 창출에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음
- 2018.12.12일을 최초로 ‘National ICT day’로 지정, 대대적으로 홍보
- 전국에 ICT 관련 회사는 5,000개사, 전체 매출 규모는 연간 7억 불 정도로 추산되는데, 44% 정도가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에서 나머지 56%는 ICT 관련 서비스(ITeS)에서 창출되고 있음

방글라데시 ICT 산업 분석

- 가장 큰 장점은 ICT 산업 인력 중, 어느 정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능한 ICT 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며 앞으로 훈련 가능한 젊은 인력이 풍부하며 영어가 대부분 가능하고 임금이 인도 보다도 40% 낮음
- 약점으로는 고급 인력이나 경험이 풍부한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또한 그동안 전력부족 및 안정적이지 못한 전압, 낮은 인터넷 속도 등 인프라 관련 약점이 있었으나 최근 급속도로 개선되고 있음
- 핸드폰 가입자가 1억5천만이며 인터넷 가입자도 1억 명을 육박해 가고 있는 매력적인 ICT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최근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으며 2003년 6만5천개의 계좌에서 2018년 2천 2백만 계좌로 폭증(모바일 뱅킹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8년 기준 5천 9백만명)

- 전국에 ICT 교육센터(Digital Lab) 구축, 1단계 사업(4,176 개소) 완료 후, 2단계(10,000 개소)를 금년에 입찰 예정(예산 : 5억 불)

- 외국기업 ICT 기업 투자 유치에 역점, 관련 인재 육성, 공급

외국 ICT 기업의 방글라데시 투자 진출 사례

- 삼성전자 R&D 센터가 다카에 주재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ICT 인력 300명 이상을 고용하여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음
- 미국의 Therap, 싱가포르의 REVE Systems 등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등과 미국의 기업 마케팅 서비스 제공 기업인 NewsCred사가 진출해 있으며 독일 Rocket Internet사도 진출하여 방글라데시에서 소프트웨어 등 자체 서비스 개발 및 전 세계 대상 사업을 위한 플랫폼으로 방글라데시를 이용하고 있음

- Ministry of ICT 산하의 'Startup Bangladesh'라는 공공기관을 설립해 다양한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추진,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음
- 유력 공과대학인 BUET(Bangladesh University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은 기업가 육성 과정을 신설
- 방글라데시 최대 통신사인 Grameenphone은 GP Accelerator라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를 론칭
- 대금결제와 물류 등 기본적인 국가 인프라의 부재를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함

○ 협력 방안

- 한국의 우수한 ICT 산업 개발 경험 전수
 - * KOICA에서 ICT 센터(기술 교육)를 무상 기증한 사례를 자주 언급함
-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10,000개의 ICT 교육센터인 'Digital Lab' 사업(총 예산 5억 불)에 대한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 전수(장비 및 솔루션 공급에 한국기업 참여 기회 창출)
- ICT 관련 스타트업 지원정책 노하우 전수 및 창업지원 교육·협력 프로그램 공동개발을 통해 양국 간 긴밀한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⑤ 항만개발 협력

○ 현황

- 벵골만을 중심으로 전통적으로 항구가 잘 발달되어 있으나, 방글라데시 제2의 도시인 Chittagong을 비롯하여 Payra, Khanpur, Mongla 등 방글라데시 수출입 물류의 관문 역할을 하는 항구는 물동량 대비 그동안 개발이 되지 않아 항구 내 물량 처리 지체 및 관련 시설, 장비의 잦은 고장, 하천 퇴적물로 인한 수심 악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음
- 2019년 4월 23, 우리 해양수산부는 방글라데시와 '항만 개발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이어서 한국기업 컨소시엄(건화, 대영엔지니어링, 희림)이 'Chittagong, Payra, Khanpur 항 등 주요 3개 항만에 대한 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검토 용역'(1천만 불)을 수주 한바 있음 (동 프로젝트의 전체 사업비 규모는 5억 불 규모)

○ 협력 방안

- 주요 항만 개발 및 업그레이드 정보 교환 및 기술 협력
- 항만 운영 노하우 전수 및 관련 공무원 초청 연수
- 항만 개발 컨설팅 제공(유상 혹은 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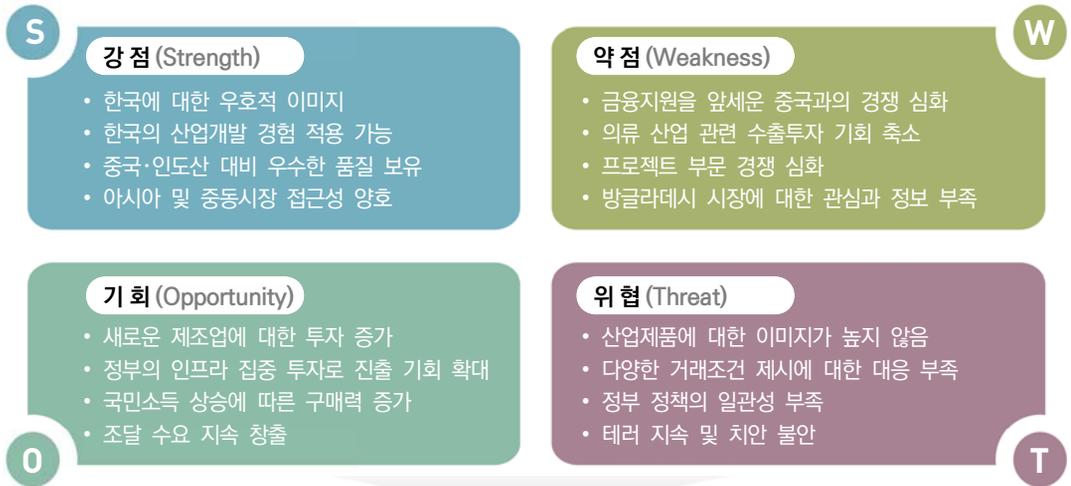


Ⅲ. 진출전략

한국의 성공 사례를 기반으로 인프라 투자 진출, 프리미엄 소비재의 진출 등 방글라데시를 유망 신시장으로 인식

1 SWOT 분석 및 전략도출

<방글라데시 시장 SWOT 분석>



전략방향	세부전략	진출전략
SO 전략 (역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조달시장 진입 확대 및 정착 • 산업개발 경험 공유 	산업개발 경험 공유를 통한 진출
ST 전략 (강점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우수상품 적극 진출 타진 • 고품질의 소비재 시장 선점 	신규 소비재 시장 공략
WO 전략 (기회 포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성장 제조업 수요 선점 • 조달 수요 F/U를 통한 국내기업 수주 달성 	신성장 제조업 시장공략
WT 전략 (위협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CF 등 국가 금융지원 활용 극대화 • 제3국 공적개발원조 적극 공략 	공적개발원조 자금 적극 활용

2 주요 이슈·산업별 진출전략



2-1. 신규 제조업 설비 공급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제1 산업인 의류제조업 지속적 성장과 함께, 내수시장 발달·정부 산업 정책으로 신산업(제조업) 협력 수요 증대
- 경험 및 자본력 부족으로 컨설팅+설비, 유희설비+기술 등 패키지형 도입 희망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정부 산업정책에 따른 신산업 수요 증대
 - 방글라데시는 의류제조업의 의존도를 낮추고 국가 산업을 다변화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신산업(IT/전자/소비재) 유치에 노력을 기울이는 중
 - 생산경험 및 기술 부족으로 컨설팅+설비 등 패키지형 도입 희망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현지 대기업 신규 공장 설립 및 관련 설비 수요 발굴
 - 방글라데시 대기업의 자본과 한국기업의 기술력을 연계한 컨설팅+설비, 유희설비 기술 형태의 패키지형 진출 유망
- 전기·전자 제품, 의료용 소모품, 생활용품 제조설비 등 유망

2-2. 내수 소비재 시장 적극 공략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구매력 상승에 따른 내수 소비재 시장 성장으로 기존의 중저가 제품 이외에 중고가 제품들 수요 증가
- 인도·중국산 제품 이외에 다양한 소비재 수입 희망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중·고가 소비재 시장 확대
 - 현지 구매력 상승으로 기존 인도·중국산 중저가 제품의 수요를 다양한 국가의 중고가 소비재가 흡수, 특히, 먹거리와 미용 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중고가 소비재 및 먹거리·미용 등 니치마켓 공략

- 경제 및 구매력 성장으로 국가 브랜딩을 활용한 소비재 시장 진출 검토 필요
- o 화장품, 식품, 의료기기, 생활용품 등 유망

2-3. 공공 조달시장 진입 확대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o 공공 조달 규모가 막대하나(GDP 3%) 현지 제조업 미발달로 수입에 의존
- o 군·경 조달시장 진출을 계기로 일반 정부 시장까지 진출 확대 추진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o 공공 조달시장 규모 확대 중, 방글라데시 정부 조달시장 규모는 2017/18 회계연도 기준 137억 달러로 GDP의 4.8% 차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o 입찰 예상품목 발굴 및 활용
 - 우리기업의 군·경 조달시장 진출이 활발하여 최근 일반 정부의 조달 프로젝트에도 진출 추진 중. 입찰 예상품목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입찰참여 필요
- o 군·경 조달품목, 전력기자재, 의료기기 등 유망

2-4. 프로젝트 수주지원 다변화

시장여건 및 전략적 가치

- o AIIB 출범으로 MDB의 대(對)서남아 지원 확대
 - * AIIB는 최초 사업으로 방, 파키스탄 등에 4개 사업 (5.1억 불) 승인
- o 만성적인 전력난· 천연가스 고갈 등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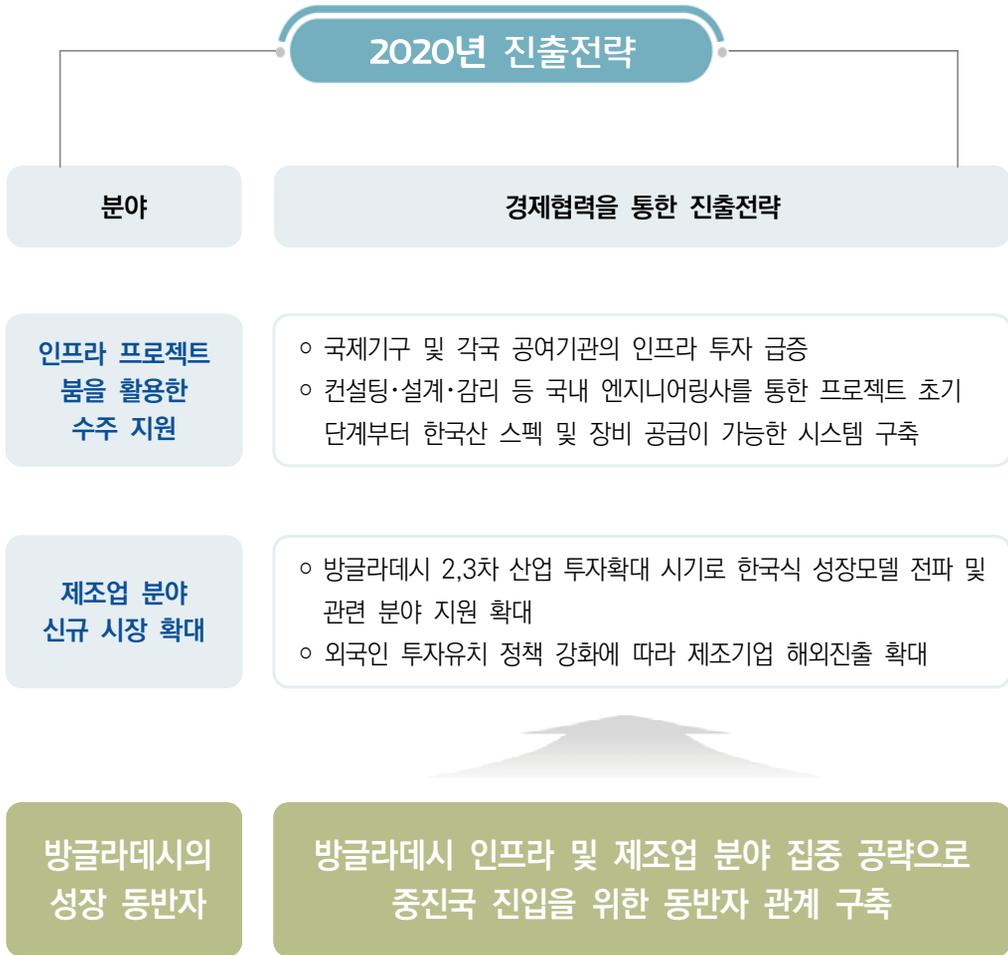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o 프로젝트 지원 확대
 - 국제기구(WB·ADB·AIIB 등)의 원조자금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이 더욱 확대되어 전력·교통·수자원·항만·공항 등 모든 분야의 프로젝트가 다수 진행 중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인프라 전문분야 프로젝트 참여
 - 국제기구(WB·ADB·AIIB 등)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의 정보를 조기 입수하여 해당 분야 전문 에이전트와 함께 입찰 참여 필요
- 전력, 교통, 수자원 등 프로젝트 분야 유망

3 한-방글라데시 경제협력을 통한 진출전략



3-1.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 붐을 활용한 수주 지원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8%대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 인프라 개발은 필수적
 - * 인프라 개발 부문 경쟁력 지수, 총 138개국 중 114위로 인프라 부족이 경제 성장에 걸림돌
- 2018/19 회계 연도 기준 연차개발지수(ADP) 규모 211억 달러로 전년 대비 16.9% 증가
 - * 서남아 지역 건설 수주 금액 지난 4년간 4배 성장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방글라데시 정부의 인프라 개선 의지 확고
 - 방글라데시 정부는 2021년 중진국 진입을 위해 인프라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여 GDP 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을 35% 이상 유지하기 위해 노력 중
- 서남아시아 지역 우리기업 건설 수주 금액 폭발적 증가
 - 지난 4년 동안 대표적인 해외 건설시장인 GCC 국가의 수주금액은 53% 감소한 반면에 방글라데시, 인도 중심의 서남아 시장 건설 수주 금액은 4배 증가

진출전략 및 유망품목

- 인프라 개발 초기 단계의 컨설팅 제공
 - 무상지원을 통한 개발 계획(마스터플랜) 제공 및 사업 타당성 조사
 - 무상 컨설팅을 통한 향후 본 프로젝트 설계 및 시공 참여 가능성 제고
- 신도시 마스터플랜, 항만 개발 계획 컨설팅 등 유망

3-2. 제조업 분야 신규 시장 확대

산업여건 및 전략적 가치

- 자국 산업보호, 제조업 육성, 신규 산업단지 개발, 국산화 정책,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정책 방향이 공업화 쪽으로 급선회
- 방글라데시 GDP에서 제조업 비중 2012년 28% → 2018년 34% 수준으로 확대

주요 이슈 및 트렌드

- 현지 대기업 성장에 따른 재투자로 자체 생산을 공장설립 및 외국 기업과 합작한 현지조립 생산 공장 증가 추세
 - 자국 산업 보호 및 세수 증대를 위해 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29% 상회
- 수년간의 평균 6~7% 경제 성장으로 내수 시장 규모 확대
 - 최근 2~3년 사이에 전자제품 수요가 급증하여, 삼성·LG를 포함하여 다국적 기업들이 현지 파트너 사를 통해 조립 및 생산 공장 설립

진출전략 및 유망분야

- 한국식 성장 모델, 한국의 제조업 육성 정책 및 산업단지 개발 경험 전수

- 최근 BEPZA(수출가공공단 관리청), 총리실 등 관련 기관에서 한국의 산업단지 벤치마킹을 위한 방한단 지원 요청
- 방글라데시 전자제품 제조기업과 한국의 부품·소재 기업 파트너링 사업 추진
 - 국내 유희 제조업 설비 수출, 제조업 엔지니어링 기술 협력
 - 턴키 베이스의 공장 설립, 기술 제휴, 운영 노하우 전수(제조업 엔지니어링 서비스 수출, 국내 인력 고용창출에도 기여)

4 진출 시 유의사항

대금결제 의도적 지연 및 불이행	수입자 재무제표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신용장 거래에도 결제 지연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글라데시는 외환 규제로 신용장(L/C) 거래만 가능, 개설 은행과 바이어의 의도적 지연 사례 발생 - 또한, 일부 대금 T/T로 송금하는 조건으로 계약 후 잠적하는 경우 발생도 다수 ■ (대응전략) 무역보험 고려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대금결제 지연과 불이행이 발생하여 수출 전 무역보험 고려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방글라데시 기업공시 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글라데시는 기업공시 의무가 없어 대기업의 경우에도 통일된 재무제표가 없고, 소규모 기업의 경우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음 ■ (대응전략) 직접 방문 및 무역관에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글라데시 직접 방문하여 기업 및 공장을 확인하거나, 무역관을 통해서 기업정보 최대한 확인 필요
수입을 빙자한 밀입국 시도	외국기업에 불리한 사법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바이어의 비자 초청장 요청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을 이유로 우리 기업에 접근하여 한국 방문을 위한 비자 초청장 요청하는 경우 발생 - 한국 입국 후 잠적하는 사례 주의 ■ (대응전략) 바이어 의심 및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글라데시 바이어가 비자 초청장을 요청해도 거절하고, 대사관 영사과 및 무역관에 진성 바이어 여부 확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사실상 무의미한 사법행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분쟁 발생 시 방글라데시 법정에서 해결하기 사실상 불가능. 국제법이 적용되지 않고 방글라데시 기업에 유리한 판결을 내는 경우가 대다수 ■ (대응전략)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서를 최대한 상세하게 적고 주요 사안에 대한 책임 명확화,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 등 모든 사항을 명시

첨부 1

수출유망품목(상품)

품목명 1	HS Code	8480	수입관세율(%)	27.55
플라스틱 금형	수입액('18/백만 달러)	0.61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0.02
	선정사유	지난 7년 동안 6% 이상의 경제 성장을 기반으로 최근 일반 공산품 및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시장동향	금형 제품 수입은 매년 15% 이상 증가하고 있고, 가전제품 생산용 및 수출용 플라스틱 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과 관련 사출기기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경쟁동향	현재 5,000개의 플라스틱 제품 제조 기업이 있지만 대부분 저가제품용 금형만을 취급		
	진출방안	중고가형 제품 생산을 위한 금형과 사출기기에 대한 시장개척 필요		
품목명 2	HS Code	3304	수입관세율(%)	127.84
화장품	수입액('18/백만 달러)	840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1
	선정사유	구매력 상승과 중·고급 화장품 수요 증가		
	시장동향	수입자가 다양한 수입제품을 수입, 마케팅은 상당부분 해외에서 방영되는 광고 등을 이용해 이뤄지고 있음		
	경쟁동향	저가 시장은 인도산, 중고가 시장은 유럽산 브랜드가 장악하고 있음		
	진출방안	현지 매장을 구축하여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하여야 함		
품목명 3	HS Code	8479	수입관세율(%)	27.55
의약품 제조 기계	수입액('18/백만 달러)	277	대한수입액('18/백만 달러)	27
	선정사유	신규투자 확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의약품 제조 기계 및 설비에 대한 수요 증가		
	시장동향	인구 1억 7천만 명의 내수시장은 물론 정부와 민간의 신규투자 확대에 따라 의약품 제조 기계 및 포장 기술에 대한 수요가 높음		
	경쟁동향	복제약 생산으로 성장한 방글라데시 제약회사들이 신규투자를 늘리고 있음		
	진출방안	의약품 위탁생산 및 의약품 제조 기계진출 유망		

첨부 2 수출유망품목(서비스)

서비스명1		
물류 서비스	선정사유	만성적인 물류 서비스 문제를 방글라데시 현지기업 및 진출기업이 앞 다투어 해결하려는 움직임
	시장동향	방글라데시 투자기업들이 물류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지기업과 합작하여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중. 후진적인 물류 시스템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로 꼽힐 정도로 개선이 시급함
	경쟁동향	현지 물류기업이 운영 중이지만 효율성이 매우 떨어짐
	진출방안	물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아 선진 물류시스템 적용 가능한 기업의 현지 물류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한 진출이 유망
서비스명2		
의료 서비스	선정사유	의료시설 부족으로 다양한 공여기관에서 프로젝트 진행 중
	시장동향	국제기구의 원조 프로그램과 연계한 신규 병원 설립 및 의료기기 보급 등 다양한 프로젝트 진행 중
	경쟁동향	현재 대부분의 의료 관련 서비스를 인도에 의존 중이나 정부 주도로 방글라데시 내 의료 서비스 확대 중
	진출방안	병원 건설부터 운영까지 전반적으로 서비스 역량이 부족한 상황, 병원 운영 서비스 및 컨설팅 분야 및 병원 신축공사 사업관리 및 엔지니어링 용역 서비스 유망
서비스명3		
전자상거래 서비스	선정사유	스마트폰 보급에 따라 저임 배달인력을 활용한 직접배달(Cash on Delivery) 기반의 전자상거래 시장 급성장
	시장동향	생필품을 포함한 소비재까지 온라인 쇼핑을 통한 구매층이 늘어나고 있음
	경쟁동향	방글라데시 내 다양한 현지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경쟁하고 있었으나 독일 Rocket Internet의 Daraz를 중국 알리바바가 인수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
	진출방안	현지 유력 온라인 쇼핑 플랫폼 기업과의 파트너십 또는 인수합병을 통한 진입이 바람직

첨부 3 2020년도 KOTRA 주요 사업(잠정)

인프라 프로젝트 로드쇼 개최(7월)

- 방글라데시 주요 프로젝트 발주처를 초청하여 ‘프로젝트 세미나 + 상담회 + 리셉션’ 으로 이루어진 인프라 프로젝트 특화 로드쇼를 방글라데시에서 개최

무역관 지원내역

- ◆ 2018년 개최 규모 : 국내기업 15개사, 발주처 6개사, 현지 건설기업 30개사 참석
- ◆ 2019년 개최 규모 : 국내기업 16개사, 발주처 7개사, 현지 건설기업 30개사 참석

쇼케이스 코리아 2020 개최(11월)

- 현지 진출기업인 삼성·LG·영원무역 등 대기업, 국내 중소기업과 현지 에이전트의 합동 전시 상담회로 2017년부터 매년 개최

무역관 지원내역

- ◆ 2017년 10월 13~14일 개최, 총 42개사 참여, 관람객 2,600명 방문
- ◆ 2018년 10월 19~20일 개최, 총 35개사 참여, 관람객 2,500명 방문

맞춤형 무역사절단 지원(연중)

- 주재국의 발전·도로·항만 등 인프라 부족에 따른 공공분야 수요와 온라인유통망 시장 확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망분야 기업 유치 및 진출 지원

무역관 지원내역(2019년)

- ◆ 공공조달 무역사절단(5월, 발전·도로 등 유망 조달분야 전문 현지 상담회 개최)
- ◆ 유통중점 무역사절단(11월 예정, 소비재 및 화장품 10개사, 현지 온라인유통망 상담)

LPG 가스 공급 사업(연중)

- 천연가스 고갈로 주재국 정부가 추진 중인 LPG 확대 정책을 활용, 한국산 LPG 공급·LPG 차량용 충전소·관련 기자재 도입 추진
- 현지 LPG 사업권자 대상, 한국 LPG 산업 관련 업체 소개 및 상담회 개최

무역관 지원내역

- ◆ SK가스 : LPG 터미널 건설 및 가스 공급 등(투자금액 3.5억 달러) * 무역관 OPS사업 지원
- ◆ 템코·거봉한진·대흥정공 : LPG 충전소 설비, 실린더 제조설비 등 상담지원

 **제조업 합작투자 및 제조설비 수출지원 (연중)**

- 현지 대기업들의 신규 사업 수요를 발굴, 국내 합작파트너 소개, 제조설비 수출지원

무역관 지원내역 : 지사화사업

- 우진플라임 : LCD TV, 스마트폰, 플라스틱 제품 사출기(5백만 달러)
- 탑포인트 : 일회용 주사기 제조 설비(2.4백만 달러)

 **유망 프로젝트 수주 맞춤형 지원(연중)**

- AIIB 출범으로 MDB 대(對)서남아 지원 확대 및 만성적인 전력난·천연가스 고갈로 대형 에너지 프로젝트 확대
- OPS(해외프로젝트 프리미엄 서비스) 사업 확대를 통한 기업 맞춤형 지원(SK가스, 제일엔지니어링) 및 발주처 방한지원

무역관 지원내역 : 프로젝트 성약지원(2018년)

- ◆ 유신-희림 컨소시엄 : 방글라데시 3개 공항 설계 프로젝트 수주(3.35백만 달러)
 - Global Project Plaza 발주처인 방글라데시 공항공사(CAAB) 초청
- ◆ 삼환기업 : BBA 아파트 신축공사 Block-A(21백만 달러)
 - Global Project Plaza 발주처인 방글라데시 철도청(BR) 초청

첨부 4 2020년도 주요 정치·경제 일정 및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정치 일정

주요 행사	일시	비고
-	-	-

주요 경제·통상 일정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FY20/21 예산안 발표	2020.7.1	

유망 전시회 캘린더

주요 행사	일시(잠정)	비고
방글라데시 플라스틱/포장기계 전시회	2020.2.12~15	
다카 국제 섬유/의류 기계 전시회	2020.2.20~23	
다카 국제 면사/소재 전시회	2020.9.2~5	
방글라데시 데님 전시회	2020.11.5~6	

부록

對방글라데시 K패키지(양국 간 상생협력방안)

① **민간 주도의 한-방글라데시 경제협력 채널 구축**

- 2019년 7월 총리 순방을 활용하여 양국 간 통상·경제협력 논의의 기회로 발전
- 대사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기업지원 협의회를 통해 진출기업이 발굴한 의제를 총리 순방에서 논의된 의제와 연결시켜 방글라데시 정부와 지속 협의

② **공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한 경제협력 아젠다 이행력 확보**

- 방글라데시는 G2G, B2G 협력 모델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 공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시장 선점 필요
- B2B 과제는 KOTRA 무역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이행하고, G2G 및 B2G 과제는 대사관 지원 또는 대기업과의 협업 등의 형태로 추진

③ **[향후과제] 관계부처 수요 반영,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및 활용**

- KOTRA 차원 자료로(대(對)정부 제안 성격), 양국 정부·유관기관·대기업의 구체적 수요 추가 반영 필요 → 정부차원 K패키지 마련
 - * 경제부문 중심이 아닌, 외교, 안보, 사회, 문화 전 분야 참여주체 수요 반영
- 양국 정부 간, 기관 간 K패키지 실행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 MOU 체결 병행

 작성자

연번	작성자	직책	소속	Tel	Email
1	장재호	과장	다카무역관	+880-2-984-4218	ho@kotra.or.kr

KOTRA자료 20-069

2020 국별 진출전략 **방글라데시**

발행인 권평오
발행처 KOTRA
발행일 2020년 1월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06792)
전화 02) 1600-7119(대표)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경제협력총괄팀
(02-3460-7689)
I S B N 979-11-6490-215-6(95320)

Copyright © 2020 by KOTRA.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의 저작권은 KOTRA에 있습니다.

